C_M_017 널갯당 오일본향

4 개요

널갯당 오일본향 본풀이는 한경면 판포리 본향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.

아내가 임신 중 돼지고기 금기를 어긴 것을 이유로 부부가 살림을 갈라 바람 위와 아래 따로 좌정하고 여신은 돼지고기를 받는 신이 된다.

② 내용

정씨하르방과 짐씨할망이 부부가 되었다. 하르방이 출타한 틈에 임신한 할망이 돼지고 기가 먹고 싶어지자 돼지털로 콧구멍을 찔렀다. 집으로 돌아온 하르방이 부정하다며 살림 을 갈랐다. 하르방은 바람 위, 할망은 바람 아래 좌정하였다. 할망은 돼지고기를 받았다.

③ 특징

널개는 한경면 판포리이다. 판포본향당은 오일본향 정씨하르방, 축일본향 짐씨할망을 모시는 곳이다. 오일본향, 축일본향으로 각기 명명된 것으로 보아 인근 여러 마을의 사례 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임을 알 수 있다.

본풀이를 보면 인근 여러 마을과는 다른 사정이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. 남녀 부부신이 돼지고기 금기 파기를 이유로 별거를 하였던 사정이 분명히 드러난다. 이에 따르면 오일 본향이 본향신의 구실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.

본풀이 내용만으로 이 마을 당신앙의 변화를 추정해볼 수 있다. 남녀신이 살림을 갈랐으며 바람 위와 아래로 따로 좌정하였다. 이는 본래 남녀신을 모시는 당이 따로 있었다는 뜻이다. 현재 남녀신을 한 곳에서 모시고 있으니, 이는 언제인가 사람들이 편의를 좇아당을 하나로 합쳤음을 의미한다. 다만 제물을 달리하는 신을 한 데 모시게 되자 제일을 달리하여 의례를 별도로 갖추는 방식만은 유지하였다.

4 핵심어

널개, 판포리, 축일본향, 정씨하르방, 짐씨할망, 돼지털, 바람, 돼지고기

⑤ 원전 서지사항

널갯당 오일본향(진성기, 《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》, 민속원, 1991)

⑥ 관련 자료